

# 『혼불』의 공간 구성에 기초한 헤테로크로니아 양상 연구

서철원(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배반과 역설의 주제, 헤테로크로니아 |
| 2. 삶의 터전과 저항의 공간       | 3.1. ‘매안’에 투영된 역미러링    |
| 2.1. 공간 분할의 모순, ‘거명굴’  | 3.2. 감시와 제약의 터전, ‘만주’  |
| 2.2. ‘고리배미’의 삶과 공간적 역할 | 4. 결론                  |
| 2.3. 양가적 공간으로서의 ‘무산’   |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최명희의 『혼불』에 나타난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성에 관한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혼불』은 매안마을·거명굴·고리배미·무산을 중심으로 공간적 분할을 보여주며, ‘만주 이주’를 통해 ‘타자’들의 현실적 모순 상황을 반영한다. 소설 내부에 고안된 공간은 작중인물의 생명력과 직결되며, 삶의 방식과 연관하여 유토피아적 근원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이질화된 ‘다른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하면서도, 그와 상반된 위치에는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한 ‘헤테로크로니아’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혼불』 내부의 공간성과 관련하여 ‘다름’ 속에 ‘같음’을 구하는 ‘이중구동(異中求同)’의 원리를 적용, 궁극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한줄기 ‘밝음’을 찾아나서는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혼불』의 주무대인 매안의 반촌과 거명굴·고리배미·무산 하층민의 계급·계층의 문제를

공간적 정체성에 근접해 그 구체적 정황을 조명하고 있으며, 만주 ‘서탑거리’를 축으로 한 이주 조선인들의 헤테로토피아로부터, 그 반대 지점에 위치하는 헤테로크로니아의 역설적인 가치와 의미를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최명희, 혼불,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크로니아, 이중구동, 공간성, 만주 이주, 암중모색

## 1. 서론

『혼불』은 1930년대 중반부터 해방을 앞둔 1943년까지 남원의 매안이씨 문중과 거명굴·고리배미·무산 하층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국을 등진 조선인의 삶의 반경을 ‘만주’로 확장하여 ‘다른 공간들’에서의 삶의 모습과 공간적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최명희의 『혼불』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소설 내부에 건설된 삶의 터전으로서 공간적 구성력의 면밀함에 있다. 일제강점기 “어둡고 억눌린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의 꺼진 혼불을 환하게 지펴올리는 해원”<sup>1)</sup>의 과정으로서 이 공간은 최명희의 삶의 일부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작가적 상상력에 의존한 가상의 유토피아적 세계이기도 하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텍스트 내부의 인간적 상황은 윤리적·도덕적인 질서 자체가 “인간-행위자의 윤리만큼이나 비인간-행위자의 윤리도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다름’ 속에서 ‘같음’을 추구하는 이중구동(異中求同)”<sup>2)</sup>의 가능성이야말로 소설의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1) 서정섭, 『혼불의 배경지와 언어』, 북스힐, 2006, 27면.

2) 이용욱, 「네크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와 인문교육의 역할」, 『국어문학』 73집, 국어문학회, 2020, 114면.

『혼불』의 작중인물들 간의 윤리적·도덕적 접근은 소설의 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성 문제 또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서의 의문과 함께 그 반대편에 놓인 어둡고 불길한 이질의 공간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혼불』은 반촌의 유교이데올로기적 생활양식과 하층민의 탈유교이데올로기적 삶의 방식을 공간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매안마을이 상부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거멍굴·고리배미·무산 하층민의 생활환경은 반촌 아래 배치함으로써 그 삶의 방식에서 예속화된 삶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혼불』의 텍스트 내부에 고안된 공간은 매우 이질적이다. 매안마을·고리배미·거멍굴·무산의 공간적 구조물은 현실 저편의 이질화된 ‘다른 공간들’에 속하며, 만주의 서탑거리를 포함하여 이 공간들은 작중인물들의 삶의 경험에 기초한 내적 아카이브가 축적된 공간이기도 하다.

푸코(Michel Foucault)는 인간 삶의 총체적 무대 너머에 위치한 이질의 공간을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사유 영역에서 상상과 실재가 혼합된 구조물로서 실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공간들’ 또는 ‘이질적인 공간’의 여러 층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sup>3)</sup>

헤테로토피아의 본질은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이며, “현실적으로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간들’에 대한 ‘독해(lecture)’의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실현하는 기술 원리”<sup>4)</sup>를 인간 삶에 적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

3)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의학용어인 ‘이소성(異所性)’의 제한적 의미를 유토피아 개념에 접목하여 공간에 대한 철학적 원리를 ‘다른 공간들’로 정의하고 있다. 양립 불가능한 공간이 중첩된 상황은 시간의 분할과 연결되며, 특정 시대의 특정 문화를 하나의 장소 안에 가두려는 발상의 전환 자체부터가 근대적인 양식에 비추어 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아카이브를 축으로 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공간에 대한 장소성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공간들’(espaces différents) 혹은 ‘이질적인 공간’(espace hétérogène)들의 위상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다.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14-20면

4) 푸코는 고유한 차원에서의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기술 원리를, 신화적인 동시에

헤테로토피아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분석의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만능도구”<sup>5)</sup>로 적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헤테로토피아에서 섬세하게 적용하지 못한 공간의 ‘부정적 기형’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헤테로토피아 원리는 유토피아적 ‘다른 공간들’의 방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그 반대편의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한 공간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헤테로크로니아(heterochronie)’에 대한 부정의 기형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헤테로크로니아’는 ‘시간의 분할(découpages du twmps)’과 직결되며, 이것은 유토피아 공간의 대칭적인 위치, 즉 헤테로토피아로부터 정반대편에 자리잡은 공간을 의미한다. “헤테로토피아가 전통적인 시간과 단절된 ‘다른 공간들’로 기능을 한다면, 헤테로크로니아는 전통적인 맥락에서 불길한 공간, 차별과 억압의 공간, 식민지 피해의 장소, 개인의 죽음과 유관한 묘지, 상실과 절망의 공간 등의 기이한 전경을 포괄”<sup>6)</sup>하며, 이것은 고도로 응축된 헤테로토피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혼불』의 경우, 일제강점기 식민지 상황에 관한 텍스트 내적 ‘다른 공간들’의 구체적 실현은 현실과 상상 사이 이질화된 공간적 지점에서의 ‘환상’이 아닌, 과거의 식민지 현실을 기반으로 한 헤테로토크로니아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 구체적 공간 양상은 매안마을과 상처된 하층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거머굴·고리배미·무산으로 집약되며, 멀게는 만주의 서탑거리까지 확장된다. 한편, ‘매안마을’의 공간적 구조가 반촌을 형성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

현실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상이한 공간들, 다른 장소들은 주어진 사회 안에서 연구, 분석, 묘사하는 ‘독해(lecture)’의 대상으로 삼는 일종의 체계적인 기술 방식을 ‘헤테로토펴로지(hétérotologie)’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은 절대적 혹은 보편적인 공간에 대해 특권화되고, 신성시되며, 금지된 장소들을 포괄하는 특수한 공간 지표로서 역사·사회·문화적으로 암시와 상징을 내포한다. 위의 책, 48-49면.

- 5) 박기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미학적 기원에 기초한 미학적 해석」, 『美學』 83권 1호, 한국미학회, 2017, 107면.
- 6) 미셸 푸코, 앞의 책, 53-54면.

유토피아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곳에도 반촌의 ‘공간 이미지’에 반하는 헤테로크로니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적 양상에 대해서도 규명은 필요하다. 이것은 “사고의 이중화에 대한 검증에 해당하며, 대상으로서 텍스트의 이미지는 부분적일지라도,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정신적 울림을 불러오는 상상력과 현상에 대한 역설”<sup>7)</sup>이 포함된다.

『혼불』의 공간성은 감각적으로 파악되는 외부세계의 공간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그 너머 작가의 내면으로부터 인지되는 정신공간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시대적 암시로부터 떨어져 나온 개별적 역사 혹은 사건, 이를 테면 식민지 상황을 축으로 하는 ‘타자(the Other)’들의 비윤리적 ‘공간 이미지’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혼불』의 방대한 서사적 일면을 구성하는 역사·전통·민속·설화(야담·가사·민요) 등의 사료가 상징화의 의미를 넘어 “매개된 실재(mediated reality)”<sup>8)</sup>물에 의한 ‘혼불’의 헤테로토피아를 시사하고 있으며, 춘복·옹구네·쇠여우네 등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사건 단위마다의 저항적 모색들은 지배와 예속의 기형적 공간 분할에 대한 일정한 질량의 헤테로크로니아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혼불』의 텍스트 내부의 모든 행위는 독자의 입장에서 실재하는 공간상의 사건인 동시에 작가에 의해 주체적으로 고안된 삶의 터전으로서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는 『혼불』의 거명굴·고리배미·무산·매안마을의 공간 구성에 기초하여 민촌과 반촌의 한정적인 공간에서 드러나는 헤테로크로니아의 본질적 조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너머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한 공간적 정체성의 탐구로부터, ‘다름’ 가운데 ‘같음’을 구하는 ‘이중구동(異中求同)’의 원리를 적용할 것

7)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45면.

8) ‘매개된 실재(mediated reality)’란 『혼불』의 작중인물들에 의해 구성된 최소 부피의 서사적 홀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진실의 무게를 가지는 동시에 환상의 허구세계를 구축하는 ‘진실임직한(vraisemblable)’ 인지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김병용, 『최명희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5, 6-8면.

이며, 궁극적으로는 『혼불』의 텍스트 내부에 자리 잡은 ‘다른 공간들’에 대한 실존적 의미와 공간적 가치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 2. 삶의 터전과 저항의 공간

『혼불』은 공간·장소에 따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역사의식이 개입된다. 이 역사의식은 작중인물들이 살고 있는 텍스트 내부의 실제적 공간으로서의 ‘터전’에서 출발한다.

『토지(土地)』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불』의 ‘공간성’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려낸 것이라기보다, 텍스트 내부적으로 형상화한 공간을 독자가 상상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창출되는 것”<sup>9)</sup>이므로, 대상 공간의 실체에 근접하여서는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질적인 ‘다른 공간들’로 작용한다. 따라서 『혼불』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설에서의 공간에 관한 논의는 “실체와 정합한 공간보다는 작가의 의식과 독자의 체험의 융화를 통해 새롭게 기획되고 창출”<sup>10)</sup>되는 ‘다른 공간들’로서의 의미가 더 적정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보이는 공간, 자립적으로 인식되는 공간들의 정체성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Unter oder unbewußte)에 근거하며, 현시된 공간의 배경이 되는 작가의 잠재의식·무의식의 세계를 규명하는 것”<sup>11)</sup>부터가 텍스트의 공간 미학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 문학의

9) 이 글은 『토지』에서의 ‘실제공간·현실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체와 동일한 지리적 위치의 공간들이 어떠한 공간적 패턴의 특징을 드러내는지 살피고 있으며, 공간 구성 면에서 『토지』와 『혼불』은 식민지 상황에 직면하여 ‘타자들’(the others)의 삶의 터전을 구성하는 점에 비추어 일정부분 공유의 지점이 확보된다. 조윤아, 「등장인물의 지리적 이동과 공간의 역동성」, 『『土地』와 공간』, 토지학회, 2015, 43-45면.

10)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23면.

11) Bruno Hillebrand, *Mensch und Raum in Roman*, Winkler Verlag, 1971, p.26.

미학적 관점에서 공간적 논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군들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지각할 때 비로소 의미 파악이 실현된다. 또한 서사의 여러 부분들은 연대기적 순서와 상관없이 이미지의 패턴이나 라이트모티프(leitmotif), 유사성, 대조의 장치”<sup>12)</sup>들을 통해 연결되며, 이러한 공간성의 지각 과정은 “공간형식”<sup>13)</sup> 혹은 ‘공간지각형식’으로 간주된다.

공간지각형식에 비추어 볼 때, 소설 내부의 공간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장소를 가리킨다. 이것은 텍스트와 무관한 지점에서 작가가 소유하는 정신의 일부에 해당하며, 현실적 층위의 실제적인 공간과는 별개로 인식된다. 이러한 텍스트 내부의 공간에 대해 독자는 상상과 추론의 방식으로 관여하며, 이로 인해 소설의 공간성은 무한히 확장된 헤테로토피아를 보여주거나 때로 어둡고 불길한 헤테로크로니아의 공간으로 축소되기도 한다.

## 2.1. 공간 분할의 모순, ‘거명굴’

작가(예술가)는, 그가 사는 것처럼 창조하지 않는다. 다만 창조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sup>14)</sup> 작가가 창조한 소설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공간적·장소적 ‘터전’이 존재한다. 이 ‘터전’은 독자의 입장에서 작가에 의해 살아지길 바라는 삶의 방식보다 텍스트 내부에서 만큼은 실존자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

12) 이호, 「소설에 있어 공간 형식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39면.

13) 언어의 미학적 형식은 독자의 태도를 바꿔놓기 위해 공간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며, 이때 텍스트상의 시간 개념은 시간과 시간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주는 객관적이고 인과적인 진행과정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건의 인과율과 정합성과는 무관한 텍스트상의 시간적 오류에 대한 언어의 새롭고도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지침, 즉 서사적 장치 혹은 논의의 방법으로써 ‘공간형식’은 도입됐다. Jeoraldan McClain, “Time in the visual arts: Lessing and Modern Criticism”, *The Journal of Aesthetics*, fall 1985, vol.XLIV, no.1, p.42.

14) 장 레스퀴르, 『라피크(Lapicque)』, Galania, 78면.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66면 재인용.

위하길 바란다.

문학에서 ‘포괄적 사회성’이 인지되는 상황은 삶의 터전에 관한 밀도와 구성력이 텍스트 내적으로 얼마나 치밀한 구조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작가가 의도하던 그렇지 않은 이미 세상에 던져진 작품으로서의 소설은 독자의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토피아로 존재한다. 이러한 개별적 유토피아에 관한 공간 문제는 매우 추상적이긴 하나 엄밀히 작가에 의해 창조된 텍스트 내부의 공간 구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혼불』은 텍스트 내부에 고안된 공간을 기반으로 정밀한 지리적 상관성을 보여준다. 매안마을을 기점으로 물 건너 아래쪽에 거명굴이 자리잡고 있으며, 거명굴과 동떨어진 외진 곳에 고리배미와 무산이 터전을 이루고 있다. 반촌의 매안, 하층민의 거명굴, 상민층의 고리배미, 공인(工人)들이 주류를 이루는 무산까지, 구성원들의 신분적 제약과 구분의 모순 상황이 공간의 분할을 통해 실현된다. 특히 반촌에서 밀려나간 거명굴 하층민의 생활방식은 매안과 동떨어진 이질화된 ‘다른 공간’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들판에 어스름이 내려앉고, 근심바우는 더욱 검은 빛으로 어둠 속에 잠겨 들어가는데, 천민 중의 천민이라 상투도 법으로 못 틀게 하여, 썩대강이 봉두 난발로 쭈그리고 앉아 묵묵히 피를 씻어 내는 쇠백정 택주의 손등에 무심한 달이 푸른 빛으로 떠오르는 때도 있었다.

노비.승려.백정.무당.광대.상여꾼.기생.공장(工匠), 여덟 가지 종류의 팔천(八賤) 천민을 나라에서 정하여 구분한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것이 백정과 무당이다.

이 세상에서 짐승말고는 노비보다 더 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백정인지라, 일반 양인들과는 같이 섞여 살지도 못하고 성문(城門) 바깥 멀찌감치 물러나 저희들끼리 모여 사니, 다른 사람들한테 ‘성 아랫것’이라는 비칭 낯출말을 들었다.<sup>15)</sup>

15) 최명희, 『혼불』 제3권 제2부 <평토제>, 한길사, 1996, 256면. 본 논문에서는 1996년 출간된 ‘한길 완간본(서정섭, 『혼불』의 수정 과정과 언어 고찰, 『혼불의 언어세계』, 혼불기념사업회.전라문화연구소, 2004, 199면)’ 『혼불』을 대상 텍스트로

위의 예문은 거명굴의 공간적 제약에서 발생하는 신분 상황과 그에 따른 삶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혼불』의 유토피아적 공간이 삶·운명·신분·가난·식민으로부터 해방된 정신의 영역으로서 ‘혼불’을 통해 실현된다면, 그 반대편의 이질화된 ‘다른 공간’은 거명굴에 직면한 현실에 해당된다.

이러한 거명굴의 공간적 요인은 ‘근심바우’를 통해 표출된다. ‘근심’으로 지칭되는 바위의 성격은 공배네, 평순네, 춘복, 옹구네, 쇠여울네 등 거명굴 인물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거명굴의 역사성과 하층민의 삶의 굴레를 증명하는 공간적 단서로 작용한다. 또한 거명굴 인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가난·신분·식민 극복의 염원을 보여주면서도 현실에 직면해서는 매안마을에 기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둡고 이질화된 ‘다른 공간’으로의 역행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공간적 현상은 단순히 그 공간만의 문제가 아닌, 공간 너머로 확장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와 연동되어 다른 스케일의 공간과 연결되는 문제의식”<sup>16)</sup>으로부터 근원적으로 고정화될 수밖에 없는 ‘장소’로 귀결된다. 한편, ‘근심바우’를 중심 네트워크로 삼는 거명굴의 경우, 유토피아 이전의 사물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이중구동(異中求同)’의 헤테로크로니아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근심바우’를 중심으로 한 거명굴의 장소적 개념부터가 외부로부터 고정적이거나 불변적인 인식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소는 열려 있고,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이며, 장소와 장소는 연결되어 있으며, 그 경계는 무수히 뚫려 있고 새로이 그려지는 것”<sup>17)</sup>에 비해 거명굴의 상황이 유독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하다는 것은 내부적·암시적으로 이어온 공간의 역사성이 말해준다.

한편, “문학의 공간은 제도화된 허구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sup>18)</sup>로서의 언급마저 상실된 거명굴의 공간적

---

한다.

16)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5, 17면.

17) 같은 글.

18) 자크 데리다, 데릭 애트리지 엮음, 정승훈 외 역, 『문학의 행위』, 문학과지성사, 2013, 53면.

한계성은 매안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신분의 분할에서 발견된다. ‘팔천(八賤) 천민’의 의미는 ‘짐승 말고는 노비보다 더 심한 차별’과 천한 대우를 받는 자로서 ‘백정과 무당’이 사는 곳, 즉 거멍굴과 직결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거멍굴은 하층민의 삶을 억압하는 장소인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굴레의 상승을 낳는 숙명의 공간인 것이다. 특히 매안의 반촌에서 내려다보이는 ‘성 아랫것’들의 공간성은 상하로 구분된 신분적 질서가 거멍굴 하층민에게 차별과 억압의 실체로 작용하며, 오랜 시간 하층민의 애환을 저장해온 이 공간은 억압과 굴레의 삶에 반한 이질적인 ‘다른 공간’으로서의 저항적 장소로도 작용한다.

거멍굴은 하층민에게 억압적으로 길들여진 가난·폭력·방조의 장소인 동시에 때로 이 “장소는 거시적 자본에 의해 유린”<sup>19)</sup>된 공간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극적 설정 자체가 『혼불』의 텍스트 내부에 깔린 공간 구성의 의미이자, 한편으론 매안의 반촌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멍굴 하층민의 삶의 방식이 비극적 종결이 전부가 아닌, 공간 내적인 자생력을 바탕으로 하여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질의 ‘다른 공간’으로서 헤테로크로니아에 해당된다.

## 2.2. ‘고리배미’의 삶과 공간적 역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공간적 정체성은 오랜 시간 억압과 차별의 시간을 견뎌줄 만큼 사유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길지 않다. 언젠가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은 어둡고 기괴한 ‘다른 공간들’의 전통적 이산 혹은 공공의 이질화에 대한 헤테로크로니아의 공간적 원리에서 파생한다. 어두운 삶의 여정은 잠재된 것이지 ‘동일자’로부터 혹은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랜 기다림 끝의 ‘밝음’이 때로 독자들에게 문화적 충격과 함께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긍정의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것이다.

---

19) 도린 매시, 앞의 글.

이러한 측면에서 고리배미의 삶의 모형은 그 삶의 역사와 유관한 공간과 시간의 유적으로부터 멀지 않은 공간적 역사와 긴밀하다. 또한 이 공간은 『혼불』의 텍스트 내부에 건설된 삶의 터전을 보다 이상적인 차원으로 끌어 올린다. 이와 같은 공간적 관계성에 의해 고리배미는 매안마을과 거멍굴의 분할된 공간 의미를 징검다리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한편으론 거멍굴의 공간적 작용과는 대별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술밭은 고리배미의 장관이요, 명물이었다.

마을을 둘러보아 눈에 띄는 명승이나 정취로이 바라볼 만한 무슨 풍경 하나도 없이, 그저 등실한 고리봉 아래 평평한 마을이 해바라지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고리배미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말밭굽 모양으로 휘어져 마을을 나직히 두르고 있는 동산이 점점 찾아내려 그저 밋밋한 언덕이 되다가 삼거리 모퉁이에 도달하는 맨 끝머리에, 무성한 적송 한 무리가 검푸른 머리를 구름같이 자욱하게 반공중에 드리운 채, 붉은 몸을 아득히 번어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황당이 있었다.

<중략>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오직 고요히, 땅의 정(精)과 하늘의 운(運)을 한 몸에 깊이 빨아들여 합일(合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 『혼불』 제3권 제2부 284면 -

고리배미 터전은 ‘그저 등실한 고리봉 아래 평평한 마을이 해바라지게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수백 년 묵은 적송 무리가 성황당을 에워싸고 있는 고즈넉한 민촌은 눈에 띄는 ‘명승’이나 ‘정취로이’ 바라볼 풍경도 없이 공활한 대기아래 숨 쉬는 공간일 뿐이다. 그곳은 ‘말밭굽 모양’으로 휘어진 마을 맨 끝에 위치한 보잘 것 없는 공간으로서, ‘오직 고요히, 땅의 정(精)과 하늘의 운(運)을 한 몸에 깊이 빨아들여 합일(合一)하고 있는’ 정지된 공간으로 표상된다.

고리배미 상민층이 처한 지리적 요건은 매안의 반촌에 섞일 수 없는 지위

와 신분의 문제에서, 거명굴 하층민들의 터전과 대별되는 삶의 방식을 구성하는 점에서, 더 한층 심화된 억압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거명굴 하층민의 삶과 다르지 않은 전근대적인 신분제도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고리배미 상민층은 신분상승의 욕망으로부터 매안에서는 밀려나가고, 거명굴에선 차별받는 이질화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삶의 방식은 분열과 상실의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복수의 공간, 복수의 배치를 하나의 실제 장소에 나란히 구현”<sup>20)</sup>함으로써 헤테로토피아로부터 분리된 어둡고 암울한 헤테로크로니아의 공간적 문제를 드러낸다.

삶의 전형을 천형(天刑)으로 여기는 거명굴 하층민과는 달리 부칠, 모갑, 서운이네와 서운할미, 떡장수 곤지어미, 비오리와 비오리네 등의 고리배미 상민층이 처한 현실은, 그 삶의 터전과 삶을 구성하는 공간만큼이나 이질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거명굴과 매안마을을 벗어나 대저까지 진출해 상업의 삶을 추구하는 고리배미 상민층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자”<sup>21)</sup>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말할 수 있는 자’의 체험을 구체화 시키는 점에서 의식의 전환과 함께 ‘타자’로서의 현실 극복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리배미의 공간·장소의 구체적 의미는 텍스트 내부적으로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한 헤테로크로니아의 공간성과 연관되면서도, 매안마을과 거명굴 사이의 공간적 분할을 이어주는 삶의 방식에서 역동성이 드러난다.

### 2.3. 양가적 공간으로서의 ‘무산’

『혼불』의 ‘공간’은 개인과 개인, 가문과 가문, 마을과 마을, 사회와 사회,

20) 미셸 푸코, 앞의 책, 52면

21) 정치란 극도의 계급적으로 분할된 사람들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자’와 ‘뭉 없는 자’들이 분노하고 고통 받는 현실 너머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기까지 시간과 공간, 위치와 정체성, 말과 소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을 배분하고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성의 분할’을 의미한다.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2판, 인간사랑, 2011, 10-11면.

국가에서 국가로 확장되는 삶의 반경이자 테두리를 규정하는 원천에 해당되며, 인물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때에 따라 인물들 간의 배반·모욕·혐오의 주체적 장소로 나타나며, 신분제도의 모순 상황을 보여주는 극적인 공간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거명굴 아래 당골네·점쟁이·고인(鼓人)들이 모여 사는 무산(巫山) 골짜기의 경우, 하층의 삶을 보여주면서도 반촌으로부터 자본의 거래를 추구하는 특수한 공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거명굴·고리배미와 대별되는 무산 공인들의 삶의 방식은 매안마을과의 소통이 한결 자유로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다른 차원의 공간적 상관물이 발견된다.

무산 위에 떠오른 달은, 토월(吐月), 이상하게도 토해 내는 것처럼 보였다. 제 눈앞의 근심바우 검은 덩어리가 그대로 가슴에 와 박히고, 또 그 아래 흐르는, 피 노린내 배어든 개울물이 땅 속의 실핏줄로 스며 스며들어 무산의 온몸에 차 오르는데, 대장장이의 쇠 치는 소리까지 그 속에 꼬챙이를 지르니.

너는 참지 못하고 밤이면 캄캄한 하늘에다 토해 내는 숲.

그것이 무산의 달이었다.

이 무산 기슭 바로 밑에, 제멋대로 자라나 스산하게 어우러진 대나무로 울을 두른 초가집 서너 채가, 꼭, 산의 오지랄 자락에 대가리를 모두고 깃들인 것처럼 웅송그리고 있었다.

당골네와 점쟁이, 그리고 고인(鼓人) 째이들이 사는 집이다.

- 『혼불』 제3권 제2부 260면 -

어둡고 가난한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무산은 공간적인 면에서 역경의 삶과 초월의 삶이 동시에 나타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벗어나거나 이탈할 수 없는 삶의 연장은 ‘근심바우’와 ‘피 노린내’와 ‘쇠 치는 소리’가 사라진 곳으로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먼 곳에서 내려 보는 달의 관점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연속된 공간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 모두 ‘토월(吐月)’에서 비롯되며, 터전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산의 ‘달’조차 평생을 걸어도 도달할 수 없는 ‘다른 공간’의 이상적 유토피아

로 남게 된다.

지배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무산의 공간적 특징은 대대로 혈맥을 유지해온 당골네 백단, 백정 택주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며, 이들과 함께 점쟁이, 고인(鼓人) 잭이들이 ‘제멋대로 자라나 스산하게 어우러진’ 초가를 태생의 근거로 삼아 ‘무산의 운몸’에 사무치도록 어두운 대기에 묻혀 살아가는 ‘터전’으로 나타난다. 낮이면 객지를 찾아 연명할 수밖에 없으며, 밤이면 더는 참지 못하고 ‘킴킴한 하늘’에 토해내는 무성한 숨결을 저장하고 있는 무산의 ‘초가’는 ‘집’으로서의 아늑함이 상실되거나 혹은 인맥이 단절된 공간으로 작용한다.

모두에게 “집은 안정의 근거나 또는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의 집적체이며, 인간이 끊임없이 집의 실재를 상상하고 돌이켜 상상하는 것은, 혹은 집이 표상하는 그 모든 이미지들을 구별한다는 것의 의미”<sup>22)</sup>는 ‘집’ 자체가 살아가는 동안의 신체의 안녕과 죽은 뒤 ‘혼불’의 안식을 제공하는 인간 본성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산의 ‘초가’는 ‘검은 덩어리’의 ‘근심바우’와, ‘땅 속의 싹틔줄로 스며’드는 ‘피 노린내’와 ‘꼬챙이를 지르’는 ‘쇠 치는 소리’로부터 ‘전율의 공감(shudder sympathy)’을 제거하는 신체적·정신적 안식의 공간에 해당하며, 공인들의 삶에 투영된 ‘최초의 장소’로서 공간을 의미한다.

이처럼 터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무산의 ‘초가’는 인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통의 거주지이자 본래의 공간으로 위계화 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은 ‘대지(大地)’의 ‘최초의 방대한 장소’라 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유토피아적 의미를 포함하는 자연적 근원성”<sup>23)</sup>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런 측면에서, 무산 공인들의 삶의 방식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계급적 대물림의 신분적 한계와 직결된다. 또한 공인들만의 공간적 위계와 ‘터전’의

22) ‘집’은 태어난 곳을 가리키며, 신체상으로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부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곳은 추억의 공간이자 현실의 장소이며, 인간 내부적(뇌, 장기, 습성 등)인 ‘습관’들의 뭉치가 서열별로 저장된 장소 혹은 공간을 의미한다.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92-93면.

23) 엄경희,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장소성에 대한 시학적(詩學的) 탐구』, 『국어국문학』 186집, 국어국문학회, 2019, 401면.

분할은 유토피아적 이상향에 근접하여, 거멍굴 하층민·고리배미 상민층과는 분리된 ‘다른 공간’의 헤테로토피아로부터 고도로 내면화된 ‘이중구동(異中求同)’의 헤테로크로니아로 연결된다.

### 3. 배반과 역설의 주체, 헤테로크로니아

역사·전통·풍습과 관련하여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공간’의 문제는 삶 그 자체의 모형뿐 아니라 시대적·사회적·문화적 모순성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린다. 특히 “소설의 ‘공간’ 혹은 ‘장소’는 인간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물리적 공간개념을 넘어, 인물의 행위와 경험의 존재적 가치가 투영되고 삶의 질료가 투사된 일정한 유형의 상징물”<sup>24)</sup>인 동시에 공시적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소설에서의 공간적 정체성은 인물들 간의 삶의 모형에 관한 감성적 분할이 진행되는 곳이며, 인물에 관한 이미지와 그 이미지로부터 파생되는 시간적 상상력을 조망하도록 하는 ‘장소’와 연관하여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치로 남기도 한다.

한편, 숨겨진 “공간의 지각은 이를 지각시키는 신체 기관의 상승 능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 혹은 고립적으로 배제시키는 억제 능력의 문제”<sup>25)</sup>와도 연결된다. 시각·청각·후각에 대한 공간 지각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생적으로 타고난 감각에 속하며, 이러한 감각은 전근대적 신분·계급제도 아래 눌린 하층민의 경우 삶의 방식에 따라 상승시키거나 혹은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공간적 착시효과에 의지한 의식적 노력일 뿐, 실상은 눈앞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왜곡이며, 선망의 현상에 대한 의도적인 혐오 내지 오해에서 나온다.

24) 임명진, 『『濁流』의 ‘장소(場所)’에 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5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260면.

25) 에드워드 홀, 최효선 역, 『숨겨진 차원』, 한길사, 2013, 87면.

이런 측면에서 공간의 발생은 지각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혼불』의 경우 텍스트 내부적으로 고안된 숨겨진 공간의 지각 문제는 ‘독해’의 인지 능력과 해석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특히 『혼불』의 주무대인 매안마을은 눈에 드러나거나 혹은 숨겨진 차원의 공간을 통해 그 삶의 고결함과 이것에 배반하는 이질화된 행동 양식에서 ‘이중구조’의 역설이 발견된다.

‘만주 이주’의 경우, 『혼불』의 주무대를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민족혼’에 비견할 작중인물들의 생존력과 그에 절박한 공간적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유토피아로서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자면, 그 상반된 위치에 놓인 ‘만주’의 공간적 해명은 헤테로크로니아의 어느 ‘다른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 3.1. ‘매안’에 투영된 역미러링

『혼불』의 주무대인 매안마을은 거명굴·고리배미·무산 하층민의 삶의 모습과는 극적으로 분할된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거명굴·고리배미·무산의 공간적 질료로부터 상대적인 유토피아로 지명되는 매안마을은 유교이데올로기의 내면적 상흔을 안고 있는 동시에 근대와 전근대가 맞물린 지점의 공간력을 확보한다. 또한 이곳은 외부의 하층 계급으로부터 극도로 이질화된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며, 내부적으로는 허물어져 가는 유교이데올로기의 중심으로서의 ‘다른 공간’을 보여준다.

한편, 매안은 가문과 ‘전통’을 중시하면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권위적이며 가부장적인 유교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향촌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인 측면에서 매안의 공간은 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거명굴·고리배미·무산 사람들의 신분상승을 욕망으로 한 “역미러링”<sup>26)</sup>의

26) ‘역미러링’(counterattack mirroring)은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래 ‘미러링’(mirroring)은 IT계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웹 콘텐츠의 자동 백업 장치를 다른 디스플레이에 표현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며, 심리학 용어 중 무의식적 모방 행위인 복제의 다른 의미로 활용된다. 여기에 네트워크-공간의 일부 급진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메갈리아나 위마드가 남성들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대상이 되며, 여기에는 일정한 질량의 탈유교이데올로기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거멍굴·고리배미·무산으로부터 매안이 차지하는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 현상은 단순히 공간의 정체성에 근접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sup>27)</sup>로 확장되는 점에서 ‘다른 공간’으로서의 역미러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돌적인 혐오와 증오의 이미지로 투영된 ‘반격’의 역미러링 징후를 최명희는 ‘매안’의 공간을 빌려 소설 내부에 안착하고 있다.

또한 미시적으로 매안마을에 대한 거멍굴·고리배미·무산 “여성들의 정치적·역사적 과거를 말살하는 행위는 매번 새로운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을 향해 이상한 돌출물”<sup>28)</sup>처럼 취급되어온 것에 대한 은밀하면서도 확고한 ‘반격’을 가하는 공간적 조건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볼 때, 매안의 공간적 위치는 거멍굴·고리배미·무산 하층민의 관점에서 이질화된 유교이데올로기의 산물로서의 ‘다른 공간’에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헤테로크로니아의 부분으로서, 청암부인에서 강실에 이르는 인물의 고결성과 신분적 질서의 공간적 유평피아로부터 그와 상반된 위치의 어두운 공간적 지표로서 매안은 접근이 가능하다.

강모는 어느덧 매안의 아랫물 발둑머리에 서 있었다.

아른아른한 아지랑이가 향불 연기처럼 오르는 마을의 뒤면으로, 벼슬봉과 노적봉, 선녀봉들이 물결을 이루며 마을을 병풍같이 두르고 있다. 그 봉우리들의 소나무 빗살이 신맛이 돌게 푸르다.

그리고 노적봉 아래 다소곳이 다정하게 엮드린 초가의 지붕 위로 햇살이 빛질하듯 내리고 있었다. 햇살은 너무나 고요하여 숨이 질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되돌려준다는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행위’의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러링’으로부터의 ‘반격’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용욱, 앞의 논문, 126면.

27) 위의 논문, 127면.

28) 수잔 팔루디, 황성원 역, 『백래시』, 아르테, 2017, 109면.

집안에 소리 죽여 들어앉아 있는 것도 같고, 어쩌면 온 마을의 집집이 텅 비어 있는 것도 같았다. 괴괴하기까지 하였다.

강모는 홀로 아지랑이와 햇살 속에 서서 이상하게 숨이 막히고 고적했다. 그 고적이 우무같이 엉기어 내려앉는 햇살에 어깨가 무거웠다.

- 『혼불』 제1권 제1부 47면 -

강모의 눈에 비친 매안의 공간적 이미지는 ‘향불 연기처럼 오르는’ 뒷산을 배경으로 깊은 침묵에 잠겨 있다. 벼슬봉과 노적봉, 심지어 선녀봉의 이름에서 매안 특유의 선비적 기질의 시각적 형상화가 드러나면서도, 그것들은 일체히 ‘향불 연기처럼’ 가상공간의 ‘아른아른한 아지랑이’에 묻혀 긴 잠에 빠진 듯 고요하기만 하다. 여기서 ‘아지랑이’가 지시하는 공간적 상황은 햇살을 받은 ‘대지’의 생래적 현상에서, 크게는 앞날에 펼쳐질 가문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암시한다.

한편, ‘향불’이 지시하는 공간적 상상력은 ‘아지랑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맞물려 매안의 공간적 ‘환상성’을 불러오면서도, 그와 상반된 이미지의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의미가 강하게 연상된다. 이러한 연상 작용은 작중 인물의 심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죽음의 색채를 지닌 반영물로서 ‘향불’은 매안의 어두운 공간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실질적인 매개물이 된다.

이와 같이 강모의 눈에 비친 매안의 공간 이미지는 거명굴·고리배미·무산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다른 공간’으로서 정지된 듯 혹은 현실 공간에서 이탈한 듯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괴괴하기까지’한 전경으로 이어진다. 강모의 시선을 고려할 때, “인간의 공간은 인간의 감각과 정신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은 자주 감각적 증거를 초월”<sup>29)</sup>하여 불길한 이미지를 삽입하기도 한다.

홀로 소리가 사라진 공간 속에 던져진 강모의 시각은 오직 눈에 드러나는 실체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꿈틀대는 심리를 ‘우무같이 엉기어 내려앉’은 고적감으로 가시화하여 매안의 공간에 투영한다. 또한 ‘향불처럼’

29)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9, 34면.

자옥한 아지랑이로부터 미래의 불확실성과 존재들의 불안한 정조(情調)를 암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어두운 시각 공간과 정적인 청각 공간의 ‘향불’ 연기로 채워진 매안의 공간을 조망한다. 여기에는 불길한 ‘공간성’의 의미보다는, 강모 스스로 ‘만주 이주’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감하면서도 미래의 불안한 심리를 사전에 극복하려는 ‘아지랑이’ 같은 미명의 희망이 발견된다.

다음 예문은 매안의 ‘땅’을 중심으로 하여 거멍굴·고리배미·무산의 생활양식과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대저, 조상의 뼈가 묻히고 그 혼백이 깃들어 있는 고향을 버리고 떠나와, 남의 문중이 있는 마을에 얹혀사는 일이란 어느 모로 살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무서운 배신ियो, 후손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으니, 그러한 것을 감당하고라도 고향땅을 등지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근본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자기의 근본을 핏개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란, 설령 상놈이 아니라 성짜 [姓字]가 있다 해도 이미 선비는 아니요, 천한 불상놈이나 다름없으며, 그가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금수(禽獸)와 같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덕석말이를 당하지 않고서야 웬만한 일로 파문에 이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 『혼불』 제1권 제1부 105면 -

위의 예문에서 발견되는 매안의 공간적 상황은 정적인 시각 이미지와는 대조를 이루면서도 반촌의 완고한 공간력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고결한 선비 정신에서 가문의 갈등과 식민의 공간 안에 기생하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땅의 “생권력(biopouvoir)”<sup>30)</sup>에 이르는 이질화된 권력의 공간적 역사를 보여준

30) ‘생권력’(biopouvoir)은 18세기부터 발전한 특수한 권력 체제가 식민의 공간에 투영된 헤테로토피아적인 세계 안에 새겨진 ‘다른 공간들’의 역사를 의미하며, 이것으로부터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간들의 역사, 정확히는 권력 공간의 역사적

다. 이와 더불어 매안의 대지에 정착한 ‘타성들’에 관한 정서적 기류와 함께 ‘향촌 공동체’로 묶인 권력의 모순 상황을 드러낸다. 조상 대대로 문중이 나고 자라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공간 내부에는 완강한 힘의 흐름이 늘 작용하며, 어떠한 공간이든 사람과 관계된 공간에서는 지배, 배제, 억압, 연대, 저항, 갈등 등과 같은 힘의 긴장 관계가 내적으로 조직화”<sup>31)</sup>되어 있기 마련이다.

한편, ‘조상의 뼈’가 묻힌 자리, ‘혼백이 깃든’ 고향에 관한 유교이데올로기 권의 공간적 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태생과 연관지어 ‘고향을 버리고 떠나와, 남의 문중이 있는 마을에 얹혀사는 일’은 조상에 관한 인륜을 저버리고, ‘근본’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배반의 삶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고향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의 경우, ‘금수(禽獸)’ 같은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나 내려지는 ‘덕석말이’를 당해도 좋을 만큼 심한 모욕과 혐오를 견디는 게 ‘타성’들의 삶이다.

문중·혈맥을 중심으로 한 청암부인의 삶을 반경으로 하는 공간적 정체성은 ‘타성’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고한 유교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청암부인의 내부에 자리잡은 유토피아로서 문중을 감싸고 있는 ‘고향’에 대한 완고한 의식이자 문중이 깃든 ‘장소’에 대한 짙은 향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혼불』의 텍스트 내부에 고안된 매안의 공간적 이상향은, 이타적이거나 배반적인 “공간적 관계망에 의해 촘촘히 분화되면서 얽히고설킨 상황을 공간적 개념으로 헤테로토피아를 반영”<sup>32)</sup>한다. 여기에는 운명적·필연적으로 투영된 ‘역미러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고향’을 등진 자

조망과 전망을 아우르는 공간의 권력 문제를 지시한다. 미셸 푸코, 앞의 책, 119면.

31)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 2013, 28면.

32) 헤테로토피아의 경우, 텍스트 내부에 건설된 공간의 분할과 개념은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지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의 내적 공간에 대한 범주를 탈중심화하여 시간적 측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공간까지 고려하는 관계망의 축조에 의의가 있다. 스테판 쾨헬, 이기홍 역,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 에코리브, 2010, 127-128면.

들의 애환은 ‘일문에서 당하는 파문’만큼이나 강렬한 배반의 담론으로부터 모욕·혐오·배반 등의 역설적이면서 이질적인 공간적 배타성을 드러낸다.

특히 ‘매안’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혼불』의 공간적 역동성은 역사·전통·민속·설화(야담·가사·민요) 등의 사료와 관련하여 ‘매개된 실제’물로서의 ‘혼불’의 “케리그마(kerygma)”<sup>33)</sup>로 연동된다. 여기에는 감성적으로 인지되는 무형의 제도·풍습·민속 등의 관습이 단순히 역사 텍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시대적·역사적 공간 재생의 실체로서 일정한 유형의 공간력을 선언한다. 이처럼 ‘혼불’의 케리그마가 보여주는 박물관적 상황은, 『혼불』의 방대한 서사적 축을 ‘보편적 세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안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향촌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거명굴·고리배미·무산 하층민들의 신분상승을 욕망으로 한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지지하는 결정지로서의 역할에도 충일하다. 여기에는 문중의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는 전통의 복원 의미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며, 그 이면의 숨겨진 곳에서는 거명굴·고리배미·무산 하층민의 역동적인 삶을 추동하는 어둡고 암울한 헤테로크로니아로서의 역할과 배반의 공간이 작동한다.

### 3.2. 감시와 제약의 터전, ‘만주’

『혼불』은 매안 마을을 떠나 만주에서의 생활상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작중인물의 만주 체험이 조국을 등진 “이주민(immigrator)”<sup>34)</sup>으로

33) 『혼불』에 나타나는 ‘케리그마(kerygma)’ 효과는 우리 문화권이 지닌 역사적 체험의 공시적 산물로서 일정한 무게로 유형화된 실체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혼불’의 역사·전통·풍습·민속 등의 구성 인자는 단순히 역사적 사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동시대적 의미에서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공간의 역사와 더불어 ‘매개된 실제’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병용, 앞의 논문, 6면.

34)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벗어나 국외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생존 전략은 문화적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탈식민의 시간적·공간적 역사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공시적 치환은 신체상의 이주, 이산, 재배치(relocation, 강제 격리 수용)에 의해 ‘국가’, ‘국민’, ‘민족’이라는 전통적 의미가 실체상 몸을 담고 있는

서의 삶을 구성하는 현장감을 보여주며, 이것은 『혼불』의 이야기가 매안을 주무대로 하여 일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증폭되며 이질화된 ‘다른 공간들’의 헤테로토피아를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조국을 등진 이주민의 삶의 방식에 접근하여 ‘만주’의 공간적 양태가 새로운 기원과 출발을 알리는 긍정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억압·폭력·차별의 신식민지로서의 부정적 기류가 동시에 감지된다. 특히 효원과의 결별에 이어 오유기와의 통정을 이유로 만주를 택한 강모의 모습은 반촌의 허위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며, 매안의 선비정신을 훼손하는 불온한 사건으로 이어진다. 반면 조선인 스스로 선택한 만주 이주의 경우, 궁핍한 현실 극복의 삶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거시적으로 조국의 독립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체적이며 역동적인 삶의 무대로서의 ‘공간성’이 발견된다.

이처럼 공간과 엄격히 구분되는 ‘공간성’이란, 인물의 행위와 그와 연관된 사건들이 전개되는 무대·장소·배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건의 필진성과 개연성, 인과성을 뒷받침하는 텍스트 내부의 총체적 토대로 이해되어야 한다.<sup>35)</sup> 따라서 소설 내부에 구성된 공간적 해명은 ‘공간성’에 기초한 인물과 인물의 상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된 직간접적인 인과율에 의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혼불』의 경우, ‘만주’는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장소이며,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질적·배타적 터전으로 존재한다. 인간 개인의 역사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인과율의 공간인 동시에 조선인 각자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개척의 ‘다른 공간’인 것이다. 텍스트 내부적으로 ‘만주’는 식민지 조선 너머에서의 이상과 개척, 새로운 삶으로서의 주체적 공간을 보여주면서도, 그 이면의 숨겨진 장소로서 일정한 유형의 다른 ‘공간성’을 제시한다.

손바닥 한 장 펴서 덮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가깝고 좁은 거리 면적에 노도

---

지역에서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다.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수정판, 소명출판, 2012, 369-374면.

35) 이호, 앞의 글, 38면.

구 파출소와 서탑 파출소, 그리고 일본 경비대 건물들이 숨소리가 들릴 만큼 바투 밀집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일본인을 보호하고 조선인을 감시하는데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라는 증거였다.

“왜놈들이야 서탑거리가 조선 사람들로 득실거리니까 늘 아슬아슬 하겠지.”

만, 그 중에서도 유독 서탑 근처 경찰 공안력을 집중시킨 까닭은, 아마 이 부근이 봉천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서탑거리로 들어서는 첫들머리인데다가, 무엇보다 조선인들의 쪽박에다 한 푼 두 푼 성금을 모아 세운 서탑소학교(西塔小學校)가 바짝 가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 『혼불』 제5권 제3부 104면 -

조선인이 행동반경으로 삼는 서탑거리는 만주의 이질적인 공간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장소에 해당한다. 억압적이고 차별화된 서탑거리의 공간적 본질은 조선인들 스스로 ‘쪽박에다 한 푼 두 푼 성금을 모아 세운 서탑소학교(西塔小學校)’가 삶의 거리와 인접한 이유에 있다.

‘서탑소학교’의 존립만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선인의 생활방식은 조국을 등진 피식민자로서의 ‘다른 공간’을 공유하고 그 공간을 개척해나감으로써 현실적 층위에서의 저항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만주로의 이주 자체부터가 삶의 개척에 해당하며, 이것은 ‘다른 공간’에 투영된 주변부적 개체들의 삶의 목적과도 통한다.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조선인 스스로 ‘타자’의 위치를 자생적인 운명공동체로 확립해나가는 과정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자각의 의미가 더 한층 공고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식민지 억압·착취·모순으로부터 외피적인 저항의 의미보다 현실적 대응으로서 ‘자기방어’에 해당한다. 자기방어란 침략에 대한 저항의 다른 의미이다. 서탑거리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에게 ‘서탑소학교’의 존립은 ‘순수한 인간성의 존재로부터 결코 공격의 책임이 없으면서 방어만 하는 존재’<sup>36)</sup>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서탑소학교’는 조국을 떠난 조선인에게 ‘우리말’ 교육의 장소로 존립

36)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131면.

하며, 나아가 민족정체성을 일깨우는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혼불』의 ‘만주 이주’가 내포하는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한 공간 체계에는 일정한 질량으로서의 조선인을 압박하는 ‘감시와 처벌’이 존재한다. 이것은 확장된 공간적 사유로부터 근대와 전근대가 중첩된 “파놉티콘(Panopticon)”<sup>37)</sup>을 연상시킨다. 여기에는 분명 광기어린 ‘어두운 차원’(dark dimension)의 공간적 효과가 존재하면서도 역설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민족정체성에 관한 계승과 수호의 의미를 드러낸다.

감시·제약·차별의 서탑거리에 대한 조선인의 자아는 “자기의식적 존재자로서 자신이 속한 세계, 즉 ‘규정된 울타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절박성은, 주체자로서의 존재자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것에 주목할 경우”<sup>38)</sup>에만 존재적 의미가 주어진다. 이것은 어둡고 암울한 ‘터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다른 공간들’의 주체적 인식에 기인한다.

이러한 공간성은 감시와 차별이 난무하는 ‘서탑거리’의 헤테로크로니아를 보여주고 있으며, 만주의 공간적 인식은 ‘우리말’의 주체적인 교육 실천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조선말로 조선글을 배우는 조선인 소학교를 자력으로 만주땅 봉천의 서탑 거리에 세운 조선 사람들은, 꼭 꿈만 같아서 자식들을 학교에 갖다 넣고는 하도 벽차고 기거워, 공연히 운동장이라도 한번 더 밟아 보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학교는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되곤 하였다.

그러니까 서탑거리가 조선 사람 삶의 등지라면, 서탑소학교는 조선 사람 정

37) 파놉티콘(Panopticon)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의 건축양식을 말한다. 이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의미하는 ‘opticon’을 조합한 것이다. 벤담은, 소수의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옥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을 갖춘 형태의 감옥 양식을 제안하면서 이 용어를 제시했다. 제러미 벤담, 신건수 역, 『파놉티콘: 감시 시설, 특히 감옥에 대한 새로운 원리에 관한 논문』, 책세상, 2007, 23면.

38) 이은영, 「주체의 인식공간과 공간성 연구: 황순원의 『日月』의 비유적 공간 읽기」,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135면.

신의 등지였다고나 할까.

-『혼불』 제5권 제3부 106면 -

조선인의 활동 무대인 서탑거리는 감시·제약·처벌의 공간으로 작용하면 서도, 서탑소학교는 은둔적 공간이 아닌, 자발적이고도 자생적인 개척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타자화된 공간 이면에 숨겨진 서탑소학교의 역할은, 조선을 떠난 ‘사람들 모이는 장소’ 그 이상의 ‘꼭 꿈만 같은’ 현실에 대한 각성과 ‘하도 벽차고 기꺼운’ 이주의 삶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제공하는 인식의 주체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은 조선인의 활력은 ‘우리말’, 즉 ‘조선말’과 ‘조선글’의 교육을 통한 민족정체성에 관한 각성과 각인에 있다. 따라서 조선인이 ‘서탑거리에 세운’ 서탑소학교는 소설 내부적으로 고안된 특수한 공간으로 나타나며,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한 이주 상황에 직면하여 조선인들의 잠재적인 힘을 기르는 곳으로 유인된다. 또한 서탑소학교는 조선인 스스로 자발적이고도 은밀한 저항력을 기르는 ‘정신적 등지’로 작용하면서도, 거시적으로는 독립과 해방을 기원하는 공간성을 보여준다.

『혼불』의 ‘만주 체험’은 최명희의 기획에 앞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에 대한 암묵적 이해와 사건의 재구성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근대지배이데올로기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은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이 상실된 상황에서 인식된 근대성은 중세지배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유교의 극복이 아닌, 청산의 대상”<sup>39)</sup>으로서, 혹은 탈유교이데올로기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해외 이주는 조선 너머 ‘다른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로 작용한다.

이처럼 이질화된 ‘다른 공간’으로서의 만주는 제도적 장치, 구역과 활동반경, 조선의 언어 등에 대한 포괄적 공동체 원리와 이주민으로서 겪는 배타적 현실에 대한 역동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인간 체험의 무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인의 관점에서 만주는 탈중심화된 영역의 그노시즘적이고 카발라적

---

39) 이용욱, 앞의 논문, 124면.

인 우주관을 기본으로 한 “보편적 존재관”<sup>40)</sup>이 반영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 때문에 집단보다는 개별 인간상의 다양한 표정과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헤테로토피아로 작용하며, 이러한 공간성의 문제는 개별 인간상이 존재한 시대·장소·경계·젠더로 분할된 ‘공시대’의 관점을 제공한다.

감시와 제약과 처벌을 뚫고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말’에 대한 계승과 역사의 소환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어둠 가운데 한줄기 밝음을 지향하는 “주체성의 공간화(spatialisation de la subjectivité)”<sup>41)</sup>의 추구를 보여준다. 결국 서탑소학교를 통한 조선인의 ‘우리말’ 교육은 조국에 대한 기억과 민족정체성의 실천적 모색에 해당하며, 거시적으로는 전통에 대한 불멸의 기록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선인들에게 ‘우리말’ 교육은, “언어의 으뜸가는 본질은 기록”<sup>42)</sup>의 의미에서 시작되며, 이 ‘언어=우리말’의 기원과 계승은 어둠과 불길하며 암울한 ‘서탑거리’의 헤테로크로니아로부터 일으며 세운 조선인의 ‘거탑(巨塔)’인 동시에 ‘밝음’인 것이다.

## 4. 결론

열린 공간에 대한 헤테로토피아의 이의제기로서 헤테로크로니아는 어둠과 불길하며 암울한 공간의 ‘다름’에 대한 규명과, 그것에 부합하는 여러 형태의 ‘어둠의 차원(dimension of darkness)’을 헤쳐 나가며 ‘밝음’을 지향하는 데

---

40) ‘보편적 존재관’은 그노시즘(Gnosticism)과 카발라(Qabalah)의 우주관을 반영하는 보르헤스의 ‘자아 개념’으로서, 무한히 복사되고 투사된 신성의 한 형태로서의 특정 사회로부터 분리된 개별적 인간상을 의미한다. 김수진, 『보르헤스 문학의 헤테로토피아: 고갈되지 않는 문학의 가능성』, 한국학술정보, 2008, 161-162면.

41) 미셸 푸코, 앞의 책, 117면.

42)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문자의 특권은 오랜 시간 세계를 지배했고, 인간 삶의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것은 ‘글’이라고 말한다. 말소리는 단지 일시적이고 불확실한 발현이므로, 언어의 으뜸가는 본질은 언어에 있다는 것이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75면.

의의가 있다.

『혼불』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공간의 절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족정체성 회복이 거론되고 있으며, 식민지 현실에서의 억압·착취·모순 상황이 소설 내부의 공간적·지리적 상관물과 관련하여 일정한 유형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거명굴의 경우, 근심바우를 중심으로 한 이질적인 다른 ‘공간성’이 노출되었다. 이것은 매안의 반촌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거명굴 하층민의 삶의 방식에서 드러났으며, 그들 스스로 ‘성 아랫것’의 억압과 굴레로부터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헤테로크로니아의 공간 양상을 드러냈다.

고리배미는 매안과 분리된 신분의 문제에서, 거명굴 하층민과 대별되는 삶의 방식에서 심화된 억압의 공간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신분 상승의 욕망이 몰고 오는 ‘어두운 역사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개별 역사로부터 상업의 업으로 삼는 고리배미 상민층의 인간적인 노력과 공적은 드러났다.

무산 공인들의 경우,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한 삶의 공간적 지표를 벗어나 ‘안주’의 생활을 찾아나서는 데 역동성이 나타났다. 무산 공인들만의 공간적 분할은 ‘집(초가)’의 유토피아적 이상향과 맞물리면서도 거명굴·고리배미와는 ‘다른 차원’의 헤테로크로니아를 보여주었다.

거명굴·고리배미·무산으로부터 매안이 보여주는 공간적·지리적 위상은 유교이데올로기의 정점 아래 이질화된 ‘다른 공간’으로서의 ‘역미러링’ 상황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보다 근원적인 해명이 요구되며, 그 이유는 유교이데올로기와 상반된 지점에서의 강모와 강실의 상피, 강수와 진예의 불륜, 강실에 대한 춘복의 ‘만행’을 둘러싼 공간의 역사와 그로부터 유리된 작중인물의 윤리적·도덕적 유교이데올로기 문제가 매안의 그늘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매안은 일정부분 작중인물들의 불안한 정조를 반영함으로써 어둡고 불길한 ‘시각 공간’과 전율의 ‘청각 공간’에 관한 구체적인 헤테로크로니아를 실현하였다.

『혼불』의 ‘다른 공간’으로서 만주의 서탑거리에는 조선인을 압박하는 ‘감시와 처벌’이 존재하였으며, 여기에는 근대와 전근대가 중첩된 ‘파놉티콘’의

어둡고 암울한 공간적 정체성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국을 떠나온 조선인들의 길은 애환과 함께 ‘조선말’·‘조선글’을 통한 인생을 건 모험·개척·저항의 의지로 분화된 헤테로크로니아의 공간적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거명굴·고리배미·무산·매안과 함께 만주 서탑거리에 이르기까지 다름 수밖에 없는 공간적 분할은, 결국 ‘다름’ 속에 ‘같음’을 추구하는 ‘이중구동(異中求同)’의 원리에서 시작되며, 이 공간은 인물들의 삶의 진경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의 유토피아가 된다. 결과적으로 『혼불』의 공간 구성에 기초한 헤테로크로니아는, 어둡고 불길하며 암울함 가운데 진정한 ‘밝음’을 찾아나서는 ‘암중모색(暗中摸索, groping in the dark)’으로서의 광활한 ‘저항정신’과 인생을 건 모험으로서의 ‘개척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최명희, 『혼불』 제1권, 한길사, 1996.  
\_\_\_\_\_, 『혼불』 제3권, 한길사, 1996.  
\_\_\_\_\_, 『혼불』 제5권, 한길사, 1996.

### 2. 논저

-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45, 66, 92-93, 131면.
- 김병용, 「최명희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5, 6-8면.
- 김수진, 『보르헤스 문학의 헤테로토피아: 고갈되지 않는 문학의 가능성』, 한국학술정보, 2008, 161-162면.
-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5, 17면.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75면.
-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14-20, 52-54, 117, 119면.
- 박기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미학적 기원에 기초한 미학적 해석」, 『美學』 83권 1호, 한국미학회, 2017, 107면.
- 서정섭, 『혼불』의 수정 과정과 언어 고찰, 『혼불의 언어세계』, 혼불기념사업회·전라문화연구소, 2004, 199면.
- \_\_\_\_\_, 『혼불의 배경지와 언어』, 북스힐, 2006, 27면.
- 수잔 팔루디, 황성원 역, 『백래시』, 아르테, 2017, 109면.
- 스테판 쾨셀, 이기홍 역, 『토폴로지: 문화학과 매체학에서 공간 연구』, 에코리브, 2010, 127-128면.
- 엄경희,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장소성에 대한 시학적(詩學的) 탐구」, 『국어국문학』 186집, 국어국문학회, 2019, 401면.
- 에드워드 홀, 최효선 역, 『숨겨진 차원』, 한길사, 2013, 87면.

- 이용욱,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와 인문교육의 역할」, 『국어문학』 73집, 국어문학회, 2020, 114, 124, 126-127면.
- 이은영, 「주체의 인식공간과 공간성 연구: 황순원의 『日月』의 비유적 공간 읽기」,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135면.
-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9, 34면.
- 이호, 「소설에 있어 공간 형식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38-39면.
- 임명진, 『『濁流』의 ‘장소(場所)’에 관한 일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5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260면.
- 자크 데리다, 데릭 애트리지 역, 정승훈 외 역, 『문학의 행위』, 문학과지성사, 2013, 53면.
-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2판, 인간사랑, 2011, 10-11면.
-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23면.
- 제러미 벤담, 신건수 역, 『파놉티콘: 감시 시설, 특히 감옥에 대한 새로운 원리에 관한 논문』, 책세상, 2007, 23면.
- 조명래,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한울, 2013, 28면.
- 조운아, 「등장인물의 지리적 이동과 공간의 역동성」, 『『土地』와 공간』, 토지학회, 2015, 43-45면.
-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수정판, 소명출판, 2012, 369-374면.
- Hillebrand, Bruno, *Mensch und Raum in Roman*, Winkler Verlag, 1971, p.26.
- McClain, Jeoraldean, “Time in the visual arts: Lessing and Modern Criticism”, *The Journal of Aesthetics*, fall 1985, p.42.

【Abstract】

## A Study on the Aspect of Heterochronie Based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Honbul*

Seo, Cheol-wo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spatiality as a site of living shown in *Honbul* by Choi Myeong-hee. *Honbul* shows the spatial division focusing on Maean Village, Geomeonggul, Goribaemi, and Musan, and reveals the realistically-contradictory situation of 'others' through the 'migration to Manchuria'. The space designed inside the novel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vitality of characters, which is the utopian source directly connected to lifestyle. In this place, there is essentially 'heterotopia' as a heterogenic 'different space' while there is also dark, ominous, and gloomy 'heterochronie' in the conflicting site of it.

In relation to the spatiality inside *Honbul*, this study ultimately aims for "Seeking for the 'brightness' in the center of 'darknes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eeking for the 'same' from 'differenc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rete circumstances by connecting the issues of class/ stratum of the lower class in Banchon, Goribaemi, Geomeonggul, and Musan of Maean as the main stage of *Honbul* to the spatial identity, and also to examine the paradoxical value and meaning of heterotopia composing the life radius of immigrant Joseon people focusing on 'Xita Street' of Manchuria and heterochronie located in the opposite point of it.

keyword : Choi Myeong-hee, Honbul, Heterotopia, Heterochronie,  
seeking for the same from differences, extensity,  
migration to Manchuria, groping in the dark.

이 논문은 2020년 06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07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